

비은행·비이자 확대... '증권맨' 경험 살려 DNA 바꾼다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6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복합점포' CIB센터 확대 오픈
투자금융으로 업무영역 확장**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으로
공정·투명성 높이고 관행 개선**



BNK금융그룹은 지난달 21일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에서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오른쪽)과 'BNK백년대계 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지주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금융권의 '개미만형'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46년생)의 경영전략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올해 비은행·비이자 부문을 강화해 그룹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년대계 위원회'를 통해 낡은 관행을 손보고 인재를 개발하는 등 건강한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비은행·비이자 강화...증권맨 역량 나오나

김지완 회장은 올해 경영방침을 '그레이트 하모니 2018, BNK 신 경영플랫폼 구축'으로 정하고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가 '원(Oone) 컴퍼니' 이상의 대화합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경영플랫폼은 비은행·비이자 부문 강화를 통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은행과 이자수의 중심인 과거의 모델을 넘어서 비은행과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금융그룹의 시너지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로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WM), 디지털, 글로벌 등 핵심사업 그룹 시너지 극대화 ▲그룹 디지털 역량 강화 ▲수익성, 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 ▲그룹 경영 효율성 극대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문화 재정립 ▲사회적 책임경영 적극 실천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BNK금융은 그룹의 수익이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BNK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 4863억원 가운데 은행업 비중(4850억원)이 99.7%에 달한다. 이는 신한과 KB 등 시중은행을 최대 계열사로 가진 금융지주의 은행 수익 비중이 60%대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편중된 수치다.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의 3분기 은행업 비중(81.1%), DGB금융(97.8%)보다도 높다. 누적 순수수익이익도 3분기 기준 2015년 1531억

원, 2016년 1329억원, 2017년 1301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40년 이상 '증권맨'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비이자의 부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부국증권, 현대증권(현 KB증권),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등에서 14년이나 사장직을 수행할 정도로 경영능력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그는 현대증권 사장 시절 자기자본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경험이 있어 BNK에서도 비은행 계열사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후 조직개편에서 은행 중심의 투자금융부문을 기업투자금융(CIB)으로 확대했다. 최근엔 부산 부전동 BNK투자증권 본사에 은행과 캐피탈, 증권사를 모은 복합점포인 '부울경 CIB 센터'를 열어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 투자금융으로 업무영역을 넓혔다.

◆조직안정 넘어 '건강한 문화' 조성도

김 회장은 지난해 BNK금융그룹의 혼란을 수습할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인 만큼, 올해 조직안정과 계열사 화합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BNK백년대계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1년간 BNK금융그룹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낡은 관행을 개선해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위해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년대계 위원회를 만들어 경영 공정성·투명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김지완 회장과 허하 부산대 명예교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위원들을 대학교수와 업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투명성·미래비즈니스·글로벌·디지털·해양금융발전)로 꾸렸다.

자유로운 토론과 인재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제1회 BNK 미래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룹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그룹 경영방향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조직 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룹 경영방향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룹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해외 MBA 연수과정 도입, 지식마일리지 제도 시행과 함께 건강마일리지 제도 시행, 금연펀드 조성 등 건강한 기업문화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금감원 "변액보험, 동영상으로 이해하세요"

**보험연수원과 동영상 제작·게시
불안전판매 방지 등 민원 감소할 듯**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연수원과 공동으로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최저 보증을 섰던 가입하면 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국민 약 6명 당 1건을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은 핵심설명과 단계별과정 영상으로 구성했다.

핵심설명에는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만을 선별해 안내했다.

단계별과정은 변액보험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문사항을 선택해 풀이(Q&A)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을 이해, 가입, 관리단계로 구분해 각 질문별로 유의 사항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한다.

동영상은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 보험다모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한 변액보험상품의 장·단점 및 특징, 상품 내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개해 불안전판매 방지와 관련 민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성미 기자 smahn1@

저녁 7시까지 영업 '야간점포' 운영

BNK부산銀 '서면롯데1번가'지점

BNK부산은행은 서면 복개천 인근 아르나호텔 2층에 위치한 '서면롯데1번가' 지점을 저녁 7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점포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면롯데1번가 지점은 직원들이 2교대로 근무하며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차근무 점포로 지역은행으로서 부산은행이 최초로 시행한다.

이 지점이 위치한 서면 복개천 일대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한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 지역이다.

야간점포 시범 운영을 통해 평소 낮 시간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향후 고객들의 니즈와 고객 특성, 영업점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야간점포를 점진적으로 확



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경영기획본부장은 "근무 시간 중 은행 방문이 어려워 조퇴를 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야간점포를 운영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점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하이로보' 3만명 가입·4000억 돌파

KEB하나은행, 출시 6개월 성과

KEB하나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HAI Robo)'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손님 3만명, 가입 금액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체험 손님과 가입 펀드계좌도 각각 10만명, 12만좌를 넘었다.

이는 하이로보가 친절한 설명이 제공되면서도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상품 가입까지 10분 이내로 완결 가능하고,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손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입 후 24시간 제공되는 'My 자산진단' 보고서와 펀드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이로보의 '자산배분 알파 알고리즘'은 지난 연말 금융위원회 주관 제2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에서 알고리즘 운용 심사와 시스템 안정성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KEB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장경훈 부행장은 "하이로보가 손님에게 사랑받



는 이유는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휴먼테크를 바탕으로 손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 결과이다"며 "1분기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하이로보 시즌2'를 론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손님이 행복해지고 손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서 국내 디지털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전세대출금리 0.08%p 상승 주택금융공사, 최저 2.96%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비담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제외)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3.0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6%였다. 이어 KEB하나은행 2.98%, 우리은행 3.01% 등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봉준 기자 b35sea@

KB국민은행, 집·직장까지 외화 배달

다음달 말까지 환전 이벤트

KB국민은행은 'KB-포스트(POST) 외화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클릭 한 번이면~ 환전한 외화를 집(직장)에서 받는다!' 환전 이벤트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외화 배달서비스는 국민은행 모바일뱅킹이나 스마트폰 간편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환전을 신청하면 외화실물을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우체국 우편서비스를 통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벤트 기간 동안 외화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액에 관계없이 배달 수수료가 면제된다. 환전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율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의 고객에게

모바일커피 상품권을 지급하며, 신청고객 모두에게는 면세점, 휴대용 와이파이 할인권 등 쿠폰팩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분당구 지역이다. 배달 가능 통화는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중국위안화, 태국바트화, 홍콩달러인 총 6개 통화로, 미국달러 환전 기준으로 최저 4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액 이하까지 이용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환전을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워 비싼 환율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환전을 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다양한 고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